

# 전태일 열사 서거일 '국가기념일 추진' 전국 확산 시동

5·18민주광장서 '평전 필사대회'  
전태일 재단·광주노동계 공동주최  
시민 60여명 한페이지씩 이어 써  
서울 첫 시작 후 내달 부산 등 계속



'전태일의 꿈, 필사로 잇다' 행사가 14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려 참가자들이 전태일 평전 손글씨 이어쓰기(필사)를 하고 있다. /조영권 기자

"아직 완성되지 않은 전태일 열사의 꿈을 위해 그가 빛이 된 11월13일은 국가기념일로 제정돼야 합니다."

14일 오전 11시께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선 60여명의 시민들이 한 데 모여 원고지에 무언갈 쓰고 있었다.

아외인 데다 바람도 적잖게 불어 이들은 원고지가 날아가지 않도록 한 팔로 꼭 누르거나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방해꾼'을 등진 상태로 한 글자씩 써 내려갔다. 또 원고지에 쓸 내용이 적힌 원본을 본 후 잠시 눈을 감고선 생각에 잠기기도 했다.

이처럼 글을 직접 옮겨보고 문장에 담긴 의미를 되새기는 이날 행사는 '전태일의 꿈, 필사로 잇다'였다.

잇다'였다.

노동절(5월1일)을 앞두고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부르짖은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전태일 재단과 광주 지역 노

동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함께 마련했다.

전태일은 1970년 11월13일 열악한 노동환경을 알리고 근로기준법 준수를 촉구하며 22세의 나이로 분신해 숨진 열사로 한국 노동운동의 상징

으로 평가된다.

그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꾸려진 '11월13일 국가기념일 지정 전태일시민행동'과 전태일 재단은 지난달 4일 서울을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전국 곳곳에서 필사대회를 열 계획이다.

필사 대상은 조영래 변호사가 쓴 '전태일 평전'으로 여기에는 그의 생애와 정신, 바람 등이 담겨 있다.

이날 필사의 대상은 평전 205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였다. 사전 신청을 통해 5·18민주광장에 모인 참가자들은 각자 전달받은 페이지를 읽은 뒤 원고지에 옮겼다.

필사를 마친 참가자들은 각자의 원고지를 머리 위로 들어 평전의 상당 부분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퍼포먼스도 펼쳤다.

광주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작성된 필사 원고지는 서울 전태일기념관에 전시될 예정이다.

광주 지혜학교에 다니는 배성현(17)군은 "학교 수업에서 전태일 열사에 대해 배운 적이 있어 관심이 있었다"며 "공부했던 글을 직접 써보니 노동자의 현실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됐다"

고 말했다.

전남대학교에 재학 중인 방글라데시 출신 유학생 파록 오마르(35)씨는 "전태일의 희생은 노동권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그는 노동자의 존엄과 공정한 노동 조건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인물"이라고 전했다.

전태일시민행동과 전태일 재단은 열사가 서거한 11월13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는 데 각지에서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다음 달 중 부산과 대구에서 필사대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박승훈 전태일재단 이사장은 "광주는 5·18 정신이 살아 있는 상징적인 공간"이라며 "전태일 정신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가장 먼저 찾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전태일 쫓겨기를 맞아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11월13일을 '노동인의 날(전태일의 날)'로 지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계류돼 있는 상황"이라며 "해당 논의가 탄력을 받고 조속한 통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창용 기자

## 순직 소방관들, 유족·동료 눈물 속 영면

李 대통령 "사명감 투철" 조전  
그리움·애통합 담긴 조사·편지  
道지사장 영결식·현충원 안장



14일 오전 완도군 농어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고(故) 박승원 소방경·노태영 소방교의 영결식에서 소방관들이 운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완도 냉동창고 화재로 순직 고(故) 박승원 소방경과 고(故) 노태영 소방교가 유가족과 동료들의 애끓는 탄식 속에서 영면에 들었다.

14일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완도농어문화체육센터에서 박승원 소방경과 노태영 소방교의 영결식이 열렸다.

전남도지사장으로 임수된 영결식은 유가족과 고인들의 동료 등 약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묵념으로 시작했다. 이어 1계급 특진·훈장 추서, 이재명 대통령 조전 낭독, 영결사·추도사 낭독, 헌화·분향 순으로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박승원 소방경에 대한 조전을 통해 "오직 생명을 지키겠다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거센 화마 속으로 달려간 고인의 숭고한 정신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태영 소방교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뜨거운 불길로 뛰어든 고인의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이 오늘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겠다"고 약속했다. 목이 잠긴 듯 힘겹게 조사를 낭독한 고인의 동

료들은 "이제 편히 쉬시라"고 영면을 기원했다.

유가족들은 "아빠는 나의 자랑스러운 영웅이야",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게 지켜봐줘" 등 그리움과 애통합을 담아 쓴 편지와 함께 눈물로 작별인사를 건넸다.

이후 헌화·분향을 통해 추모객들은 고인들의 현신을 다시 한 번 기렸고, 거수경례로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영결식이 끝난 뒤 박승원 소방경과 노태영 소방교는 대전 현충원 소방관 묘역에 안장됐다.

한편 박승원 소방경과 노태영 소방교는 지난 12일 완도의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서 거세진 화염에 고립돼 숨진 채 발견됐다. /안재영 기자

## 광주노동청, 취업지원수당 부정수급 17명 적발

4천600여만원 반환 명령·형사고발

허위 구직활동 서류를 제출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을 부정하게 챙긴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4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을 부정 수급한 15명과 이를 돕은 학원 관계자 2명 등 총 17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실제 구직활동이나 직업훈련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서류를 제출해 구직촉진수당 3천400여만원 등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등 취약계층에게 취업 지원과 생계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된다.

조사 결과 관내 한 직업훈련학원의 직원 일부가 수강생이 제도 참여 자격이 없자 부모 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신청을 대리로 진행토록 하고, 수강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출석부를 작성해 부정 수급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동일 IP를 사용하고, 카카오톡 등을 통해 허위 출석 자료를 공유하는 등 사전에 공모한 정황도 밝혀졌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약 3개월간 기획조사를 벌여 이 같은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 부정수급액에 추가 징수액 1천200여만원 등 총 4천600여만원 반환을 명령했으며, 관련자 전원을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안재영 기자

이도영 광주고용노동청장은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제도의 신뢰를 높일 것"이라며 "금전적 유혹에 따른 부정수급에 가담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창용 기자

## 제주항공 참사 유해 재수색 재개

준비 미흡 등을 이유로 12주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재수색 첫날 오후 중지됐던 작업이 재개됐다.

14일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 수습 당국은 무안국제공항 일대에서 다시 재수색에 돌입했다.

전날 유가족들은 재수색 매뉴얼과 통합 컨트롤 타워 연락망 미비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수습 당국이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가져오면서 재개가 결정됐다는 게 유가족협의회 설명이다.

한편 전날 오전과 이날까지 이어진 작업으로 발견된 유해 추정 조각은 총 75점이다. 이것들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유해 여부를 확인한다. 재수색 전 잔해물 재분류와 유가족에 의해 수습된 유해 추정 물체는 총 115점이었는데, 이 중 74점이 희생자 44명의 인골인 것으로 확인됐다. /안재영 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철거 전문가**  
광주·전남 전지역 가능

- ✓ 철거 경력 20년!
- ✓ 광주·전남 전 지역 출장 가능
- ✓ 상가, 주택, 간판, 내부 철거 등
- ✓ 당일 견적 OK / 소규모 철거도 가능
- ✓ 안전·정리+깔끔함까지 책임집니다.

**현주 제로레벨**    ☎ 상담전화 **010.9842.5570**